

번호 11-6

제 목	국문	부산지역 베트남전 참전자 2세의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영문	Health Impacts of Herbicides Among Korean Vietnam Veterans' Children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전진호·김학준 <sup>1)</sup> ·손혜숙·엄상화·박수경·유병철·이종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보훈처 부산보훈병원 <sup>1)</sup>				
	영문	<i>Jin-Ho Chun, Hak-Joon Kim<sup>1)</sup>, Hae-Sook Sohn, Sang-Hwa Urm, Soo-Kyung Park, Byung-Chul Yu, Jong-Tae Lee</i>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Inje University Pusan Veterans Hospital <sup>1)</sup>				
분 야	보건관리 ( )	발 표 자	일반회원 (○)	발표 형식	구 연 (○)	
	역 학 (○)		전 공 의 ( )		포스터 ( )	
환 경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b>1. 연구 목적</b></p> <p>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고엽제 폭로에 의한 건강피해 중에서도 1세대(부모)의 고엽제 폭로에 따른 2세대(자녀)의 건강피해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향후 고엽제에 의한 건강피해 구명의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특히 참전자의 2세에서 나타나는 건강피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산보훈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와 후유(의)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 또는 통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2세의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였다.</p> <p><b>2. 연구 방법</b></p> <p>조사대상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던 부산 및 경남 지역 거주자 71명과 그들의 자녀 182명이었으며 조사기간은 1998년 4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였다. 조사방법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면담 및 전화통화와, 신체검사, 의무기록 등에 의하였다.</p>						

### 3. 연구 결과

1세대(부모) 대상자 전원은 베트남전에 직접 참여한 군인으로 평균 나이는 52.8 세였다. 거의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93.0%)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세대 대상자의 평균 참전기간은 15.0 개월이었으며, 개인별 폭로정도는 평균 16.1점으로 중등도 정도였다. 고엽제 피해로 간주되는 증상 발현의 잠복기는 평균 14.5개월 이었다. 1세대(부모) 대상자의 90.1%가 고엽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판정을 받았으며 21 명(29.6%)은 후유증으로, 43 명(60.5%)은 후유의증으로 판정을 받았다. 고엽제 후유증은 말초신경증 13 명, 염소성여드름 5 명,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2 명, 다발성골수종과 기관지암 각 1 명 이었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혈압 20 명, 당뇨병 18 명, 간질환 12 명, 중추신경장애 11 명, 뇌졸중 9 명, 다발성신경장애 6 명, 지루성피부,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 각 3 명, 동맥경화증, 악성종양, 심상성건선 각 1 명 등이었다. 평균 임신회수는 3.6 회, 자녀수는 평균 2.5 명이었으며 대상자의 42.2%가 유산, 16.9%가 사산을 경험하였다. 폭로정도에 따른 유산과 사산의 경험률은 차이가 없었다. 2세 대상자 중 90 명(49.5%)이 고엽제 피해로 간주되는 질병 및 증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색소성 피부 38 명, 피부발진 23 명, 선천성 기형 15 명, 전신허약 12 명, 피부 반점과 시력장애 각 8 명, 저체중아와 말초신경염 각 3 명, 마비증세와 정신신경증 각 2 명, 후두암과 간질환 각 1 명 등이었다. 폭로정도가 높을수록 피부 발진과 선천성 기형, 전신허약이 많은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4. 고찰

본 성적은 주관적 응답에 의존하였으므로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려한 경향이나 응답의 부정확성, 기억편견, 보고편견 등의 개입, 보상심리의 작용 등에 의한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2세에서 나타나는 건강피해에 대한 관찰은 향후 고엽제 피해에 대한 대책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규모가 크며, 정확한 근거에 의한 2세 연구가 필요하다.